

국악-러시아 민속음악 한옥마을에서 즐기러

한옥마을 비빔공동체, 내일 '한-러 민속음악 연주회'
올리브셰바 러시아 민속악기 오케스트라 참여 무대

가을의 정취로 물든 전주한옥마을에서 국악과 러시아 민속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26일 오후 6시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이사장 이세중)가 주관하는 '전통과 조화를 위한 한·러 민속음악 연주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춘 문화콘텐츠 확보 및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연주회에는 '올리브셰바 러시아 민속악기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소프라노의 '작은 밤의 세레나데' △소스타코비치의 '러시아의 왈츠' △박물장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연주곡과 러시아 민요, 가요곡과 해금 등 국악연주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982년 러시아 9번 음악학교에서 설립된 이 오케스트라는 학생들과 졸업생,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연에는 러시아 공훈예술가인 이리나 실라예바 지휘자 등 단원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올리브셰바 러시아 민속악기 오케스트라 단원들

과의 전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옥마을 한옥숙박 체험과 한옥마을 일대 해설투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향후 러시아 공연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한편 구소련권 독립국가와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비빔공동체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옥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한옥마을 방문 감사 축제도 열 계획이다.

이세중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이사장은 "한옥마을 주민, 상인, 여행객들이 한 데 어우러져 한국과 러시아의 음악을 들으면서, 경기전 담장 너머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한옥마을의 가을 정취를 한껏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초중고생 대상 '야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미래주요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132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시행 등 늘어나는 현장체험 수요에 발맞춰 전주시 초·중·고등학생들

의 현장감 있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야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서관과 시 산하 문화시설 등 자체 운영하는 23개 체험프로그램과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36개 행정체험 프로그램,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73개 프로그램 등

총 132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한 상태로 교육지원청과 일선 초·중·고등학교 등에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임 △과학 △교통 △농업 △문화 △보건의 △뷰티 △생태 △예술 △요리 △인문 △행정 △환경 1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적성 발굴과 소질 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나에게 특+ 되는 보험

내 아이를 오래오래 지켜주고
내 가족을 걱정없이 도와주고
내 노후를 건강하게 챙겨주고
내 안전도 든든하게 보장하고

**MG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나에게 특+ 되니까**

모두가 특+ 행복가득+

MG새마을금고보험

전북대병원 이재현 교수 국제학회서 '우수연재상'



국민연금공단은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현 교수가 감염을 일으키는 혈청형 연구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재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현 교수는 최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서 혈액배양에서 나온 연쇄상구균의 혈청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안전사고 예방·문화 확산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 등과 캠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장지용) 등 직원 30여 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에서 전 주산업단지 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 캐치프레이즈 당선작인 "방심은 줄이고! 조심은 더하고! 안전은 지키고!" 현수

막 사용과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8월 22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윤양배)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안전총괄책임자인 박정배 기획이사는 "공단은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24일, '전주시 조례정비비용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시 조례정비비용 최종보고회 개최

시의회 조례연구회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24일, '전주시 조례정비비용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위법령 위반 조례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및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자치법규(조례) 중 올해 안에 57개 조례정비를 하고 230건의 용어정비를 하는 것과 함께 법령에서 위법한 필수조

례 가운데 전주시에 없는 10개 위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연구회는 최종보고회 이후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비 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절차를 논의했다.

조례연구회 회장 이기동 의원은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양적 증대는 행정 절차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향후 16명의 조례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도출된 조례안들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조례정비를 체계화하고 권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택수 교수와 공동연구로, 2016년부터 3년간 혈액배양으로부터 분리된 111주의 *S. agalactiae*를 대상으로 혈청학적 분석을 시행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다른 혈청학적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중간보고 형태로 보고했다.

*S. agalactiae*는 신생아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주요 원인균으로 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환자나 면역저하환자에게 혈류 감염이나 패혈증에서 침습성이 높은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백신 개발의 주요 대상 균주이기도 하나, 아직 유효한 백신이 임상상황에 출시된 것은 없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이러한 감염의 주요 혈청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으로, 향후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백신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학회에서 인정 받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영유아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균형 잡힌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섰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이하 센터)는 24일 센터 키즈룸 놀이실에서 센터 회원 및 16개월~36개월 영유아 자녀를 포함한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공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경첩이 많은 체육강사가 준비한 월별계획안에 따라 각종 체육활동과 도구를 활용한 놀이 등을 통해 유아아이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서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참여한 가족들은 △2인 1조 회전하기 △나는 셔틀 록 △평판대 놀이 △재미있는 줄 놀이 △원형판 놀이 등 기본 운동 능력 향상과 더불어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김윤상 기자

완주 소양·상관 주민센터

평화1동 복지 우수사례 학습

완주군 소양면, 상관면 2개소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특화사업 사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노인분야) 운영 현황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현황 등 평화1동 맞춤형복지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지원네트워크 구성,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